

전남대·광주시 '디지털 메디헬스 국가연구소' 유치 나선다

1130억 원 규모 초대형 연구소…올해 NRL 2.0 공모 도전
심뇌혈관·암 등 난치성 질환 정복 '초격차 기술' 개발 목표

광주시와 전남대가 총사업비 1130억 원 규모의 초대형 국가연구소(NRL 2.0)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지역 바이오 연구 역량을 결집해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웰에이징(Well-aging)' 시대를 선도할 핵심 질환 제어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남대를 주관 연구 개발기관으로 하는 '디지털 메디헬스 국가연구소'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번 공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하며, 선정된 대학 부설 연구소를 지역의 연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모 사업 과제명은 '웰에이징 시대 핵심질환 고도 제어를 위한 초격차 바이오인터페이스 공학 연구'로 확정됐다. 사업 기간은 오는 7월부터 2035년 12월까지 총 10년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950억 원, 시비 27억 원, 대학 대응자금 95억 원, 기업 부담금 58억 원 등 총 1130억 원에 달한다.

광주시는 공모에 최종 선정될 경우 2030년부터 2035년까지 6년간 총 27억 원의 현금을 지원한다는 협약서를 전남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논의되던 45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감액 조정된 규모지만, 투입 대비 지역 내 연구 활성화와 인재 양성 효과가 끊 것으로 판단해 지원을 결정했다.

연구소는 심뇌혈관 질환, 퇴행성 질환, 암 면역 치료, 생체의료 소재 부품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연구 프로젝트로는 다중센서 기반 심질환 멀티 모달 센서 및 예측 기술 개발, 박테리아 표적치료와 지능형 센서를 융합한 암 면역 테라노스틱스(진단·치료 동시 수행) 개발, 첨단 재생소재와 온·인바디(On/In-body) 센서를 융합한 퇴행성 질환 극복 기술 개발 등이 추진된다.

연구 수행은 전남대가 주관하며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비롯한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총 18 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된다.

연구 거점은 전남대 용봉캠퍼스(메인 R&D), 학동 및 화순 캠퍼스(의료 실증), 첨단지구(디지털 헬스 R&D 거점) 등에 분산 구축돼 광주시 전역을 아우르는 '바이오 연구 벨트'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연구소 전용 공간만 3818㎡ 이상이 확보되

며, 100종 이상의 첨단 연구 장비가 투입된다.

전남대는 국가연구소장을 총장 직속 기구화하고 교무위원 직위를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전임교원 13명을 신규 임용하고 박사후연구원(포닥) 10명을 채용하는 등 인력 양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국가연구소 유치를 통해 지역 바이오 기업들이 겪고 있는 전문 인력 부족과 임상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에 편중된 의료 기술과 인력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대학병원과 기업이 상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기술 개발이 실제 제품화와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기대 효과로는 신규 인재 고용 100명 이상, 신규 창업 기업 5개 이상 배출, 코스다 상장사 2개 이상 배출, 지역 기업 기술이전 총액 30억 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손두영 인공지능사업실장은 "메디헬스 분야는 진입 장벽이 높지만 시장에 안착하면 고용과 수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전남대 연구소를 지역의 개방형 연구 생태계 거점으로 육성하고 청년 연구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22일 광주 우치동물원을 방문해 판다 도입에 대비한 동물원 시설과 인력 등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김지사 "전남의대 2030년 개교는 늦어…앞당겨 달라" 정부에 촉구

보정심 4차회의…개교 시기 등 논의

정부가 전남 국립의대 개교를 2030년으로 늦추자 다급한 전남의 의료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는 지적이 엇따르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정부에 조기 개교를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지역민도 개교 시기를 앞당길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4차 회의 결과, 오는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 없는 지역의 의대에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는 계획이 논의됐다. 정원은 각각 연간 100명 수준을 가정해 전체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배정하기로 했다.

보정심이 전남 국립의대 개교 시기를 2030년

으로 설정한 데에는, 중장기적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의료인력수급주체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 국립의대 개교를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의평원은 의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의료계와의 대립이 점예한 시점에서 내년도에 전남 국립의대를 개교하기란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남 30년 숙원인 전남 국립의대를 신설하고, 정원을 배정하겠다는 소식은 반길만하지만, 당초 전남도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전남 국립의대 개교 시기로 2027년을 목표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2030년 개교 계획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전남의 의료 현장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의 개교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겨 달라"고 대정부 촉구 입장문을 냈다.

김 지사는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에 정원 100명을 배정하기로 심의한 것은 전남도와 모든 도민이 함께 환영한다"면서도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개교 시점은 전남의 현실을 고려할 때 너무 늦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는 2028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급한 전남의 의료 여건을 고려해 국립의대가 하루라도 빨리 문을 열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허정 전남 국립의대 유치위원장은 "의료계 사정과 개교 준비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가능하면 1년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민주·혁신 합당하나

▶ 1면에서 계속

조 대표는 이날 전주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우리당과 민주당은 일관되게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대선에서 혁신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였다"며 "동시에 혁신당은 정치개혁과 개혁, 사회권 선진국 실현, 토지 공개념 입법화 등 민

주당이 말하지 않는 진보적 미래 과제를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런 두 시대적 과제를 모두 실현할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다. 제안을 하면 제가 답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당의 절차에 따라 논의하는 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호남 등 지자기반에 걸친 지역에서 양당의 '경쟁 구도'가 형성된 와중에 던져진 합당 제안이

라 적지 않은 파장도 예상된다.

전격 합당 제안에 따른 민주당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정철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의 뜻을 묻지 않은 일방적인 합당 추진, 반대한다"고 주장했고, 모경종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합당은 당내 구성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소나무당 등 범진보세력과의 추가 합당 등 외연 확대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강조했다.

판다를 들여올 경우 국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를 상징하는 동물원이 될 수 있는 만큼, 광주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시설과 인력 등 수용 태세를 갖추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치동물원은 거점동물원으로서 '2025년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우수상을 받는 등 의료와 시설 역량을 평가받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우치동물원은 단순한 관광 시설을 넘어 동물 보호와 진료의 전문성을 갖춘 생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판다 입식이 성사된다면 중앙정부와 손잡고 세계적 수준의 사육 환경을 조성해 동물 복지와 관광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2000억 시행…역대 최대

광주시는 2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광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등 7개 금융기관과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맺었다.

특례보증은 광주시와 은행들이 보증 재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 저금리 대출을 돋는 제도다.

올해 투입되는 보증 규모는 총 2000억 원이다.

광주시는 41억 원, 7개 협약은 103억 원을 각각 출연해 총 144억 원의 보증 재원을 마련했다.

업체당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 원이며, 신용 평점 350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 금리의 3~4%에 해당하는 이자를 대신 갚아준다.

자금 신청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자금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지역 총판 모집 안내

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

국내 최초 렌탈공급 등록 업체



DB

1억원 배상책임보험

증권번호: 120251388541

장애인 인증 제2024-08-09

증권번호: 120251388541

장애인 인증 제2024-08-09</